

증상 없는 시력도둑 ‘녹내장’…물체 휘어져 보이면 ‘황반변성’



나의 건강 묻고 답하다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

〈하〉 녹내장·황반변성

“뚜렷한 증상이 없는 녹내장은 정기검진이 필수적이며,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가까운 물체의 직선 부분이 휘어져 보이면 황반변성을 일단 의심해야 한다.” 전남대병원 안과 윤경철 교수가 안과 질환인 녹내장과 황반변성 예방을 위해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두 질환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녹내장 (Glaucoma)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는 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녹내장은 우리가 눈 내부의 물인 ‘방수’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안압이 상승해 시신경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초기에는 통증·충혈·시야흐림 등의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좁아지는 말기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녹내장,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손상
황반변성, 중심시야 담당 황반 퇴행
실명 원인…조기발견·정기검진 필수

“녹내장은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해야 할 수 있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녹내장은 정기검진이 필수적이다. 안과에 방문해 기본적인 시력 및 안압 검사와 안저 사진촬영을 시행해 이상소견이 보이면 OCT 촬영 혹은 시야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발견할 수 있다. 40세 이상인 경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3~6개월에 한 번씩 안과 검사 받는 것을 권한다.

“한 번 생긴 녹내장은 완치가 가능한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가.

▲녹내장의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시신경 손상 속도를 지금보다 늦추거나 정상인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다. 한번 손상된 시야와 시신경 또한 복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치료는 현재로서는 없다. 녹내장의 관리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안압강하제 점안을 통해 안압을 정상범위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안압이 낮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안압은 정상적으로 유지됨에도 시신경손상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적



윤경철 교수

“황반변성은 어떤 질환이며, 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나이관련 황반변성”은 세계적으로 실명 원인 질환 3위이며,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가장 흔한 실명의 원인이다. 따라서 반드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안구 뒤쪽에는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라는 신경조직이 있다. 이 중에서도 중심시야와 색깔 등을 담당하는 황반이 있는데, 이곳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 바로 ‘나이관련 황반변성’이다. 증상이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진행되면 특히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직선이 휘어져 보이게(변형시) 된다. 혹은 글을 읽거나 그림을 볼 때 주로 중심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물의 형태를 구별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대비감

(색 및 명암을 구별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더 진행하는 경우 시력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두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나이관련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구분된다. 건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에서는 망막에 황갈색의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며 서서히 망막이 위축되어 간다. 또한 진행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으나 진행될 경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은 황반 밑에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황반부종이나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비교적 시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습성의 경우 제때 치료 받지 않으면 3년 내 약 75%에서 시력이 0.1 미만으로 크게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황혈관내피성장인자 안구내 주사치료가 도입돼 시력저하의 가능성을 절반정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실명의 발생 또한 7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황반변성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상생활에서는 금연, 규칙적인 운동이나 체중, 혈압, 혈당 관리 등이 있지만 이것들로 완전히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발생을 억제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안과에 내원해 진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녹내장 체크리스트

1	양쪽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한쪽 눈을 가리면 시야가 답답하다.
2	계단 내려갈 때 발끝이 잘 안 보이거나 자주 헛디딘다.
3	사람이나 물체를 옆에서 불러도 잘 인지하지 못한다
4	밤길이나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유난히 좁아진 느낌 이 든다.
5	눈이 자주 빠근하고 두통이 동반된다.
6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다.
7	고혈압·당뇨병·저혈압 또는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 중이다.

■ 황반변성 체크리스트

1	글자 가운데가 흐리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
2	직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물결처럼 보인다.
3	사람 얼굴의 중심부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4	밝은 곳에서도 사물이 뚜렷하지 않다.
5	색깔이 바래 보이거나 대비가 떨어진 느낌이 든다.
6	한쪽 눈은 괜찮은데 다른 쪽 눈이 유독 잘 안 보인다.
7	50세 이상이면서 흡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

※인터뷰 영상은 광주일보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화순전남대병원, PET·MRI 융합 간암 예후 예측

영상의학·핵의학과 공동
국제학술지 최신호 게재

화순전남대병원 연구진이 MRI와 PET 영상을 함께 분석해 조직검사 없이도 간암의 성격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서로 다른 영상 정보를 결합해 간암의 대

사적 특성을 영상만으로 구분한 연구 결과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영상학과와 핵의학과 공동 연구팀의 성과가 국제학술지 Academic Radi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핵의학과 문장배 교수와 영상학과 허숙희 교수가 공동 제1저자로, 핵의학과 권성영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간세포암이 어떤 에너지원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암의 성격과 예후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간암은 상대적으로 악성도가 높고, 지방산 대사가 우세한 경우에는 비교적 분화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주로 PET/CT 검사를 통해 확인해 왔다.

연구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간세포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간 MRI에서 보이는 조



문장배 교수



허숙희 교수



권성영 교수

영 증강 영상만으로도 이러한 대사적 차이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MRI의 초기 동맥기 신호 강도를 분석하면 해당 간암이 포도당 대사형인지, 지방산 대사형인지를 99%의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주로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로 여겨졌던 MRI가 암 세포의 대사 특성까지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영상 진단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크다. 조직검사와 같은 침습적 절차 없이도 영상 검사만으로 간암의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색전술·약물 치료 등 맞춤형 치료 전략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조선대병원, 고난도 최소침습 ‘전내시경적 요추 유합술’ 선도

신경 감압·디스크 제거 등 수술

조선대병원이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전내시경적(단방향, Uniportal) 요추 유합술’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며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척추 수술의 흐름은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정장 조직 손상을 줄이는 최소침습 수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내시경적 요추 유합술은 약 1cm 내외의 단일 절개를 통해 신경 감압, 디스크 제거 및 케이지 삽입 등 유합의 핵심 과정을 시행하며, 이후 최소 절개를 통한 후방 고정술을 병행하는 고난도 최소침습 수술법이다.

특히 이 수술법은 피부 절개와 근육 손상을 극소화할 수 있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적 만족도 또한 높은 것이 장점이다. 전신 질환을 동반한 환자나 수술 후 빠른 일상 복귀가 필요한 고령 환자에게도 폭넓게 적용 가능해 수술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 좁은 단일 통로를 통해 모든 수술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집도의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고도의 술기 숙련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대표적인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최근 내시경 기법과 수술 기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서종훈 교수가 ‘단방향 요추 유합술’을 시행하고 있다.

구의 발전으로 내시경적 수술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케이지 삽입과 충분한 유합 안정성 확보 또한 가능해졌다.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서종훈 교수는 “전내시경적 요추 유합술은 최소침습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충분한 신경 감압과 안정적인 유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술”이라며, “지역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에 지속적

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로부터 호남권 최초로 ‘척추내시경수술 국제교육센터’로 지정된 데 이어, 독일 리우스 파인(RIWOSpine)사로부터 ‘글로벌 우수 척추내시경 수술센터’로 지정되어 국내외 의료진에게 최신 수술법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